

Since 2003

인후생활문화센터는

시민들의 일상 속 생활문화 실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동호회활동, 각 기관별 연계사업, 체험프로그램, 인문학강좌,
11,0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한 작은도서관 등을 상시 운영하면서
다채롭고 풍성한 생활문화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Contents

생활문화 플러스	04	생활문화플러스
	04	행복과 부의 공식
	06	생·동·감
	08	마음까지 춤추는 줌바
	10	디지털 삶 속 사진 및 동영상편집
	11	우리집 첫 겨울 리스
	12	문화거리60
Makers 이후	14	Makers 이후
	15	꽃으로 피어나다 / 흙으로 빛는 순간 / 나무의 향기
	16	우산은 사랑을 싣고 / 재스퍼의 오싹오싹 팬티
	17	외국인친구와 함께 요리노리 / 에코 오브제 트레이
교육, 동호회 프로그램	18	교육 동호회 프로그램
	19	참여자 소감
생활문화 네트워크	20	생활문화네트워크
	20	꿈꾸는 창작놀이터
	24	평생학습한마당 『지속전주, 함께이지』 / 공감과 치유의 인문학
	25	꿈다락토요문화학교-『꼬마예술가 KEY, KEY』 / 스마트폰활용교육
	26	우수콘텐츠 잡지 보급사업 / 모서리도서관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단갤러리	27	계단갤러리
책마을	32	책과 사람을 잇는 작은도서관
	33	독서동아리 활동소개
사업성과 공유회	34	2025 삶이 꽃이 되는 순간
인후사용 설명서	36	인후생활문화센터 & 안골작은도서관 이용안내

생활문화 플러스

중소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그렇듯 지방 소멸의 가속화, 양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부족 등 적지 않은 차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후생활문화센터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경험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행복과 부’를 주제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찾고, 어떻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지 자신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 보는 사유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2025지혜학교

행복과 부의 공식_생활 속 경제 인문학

#인문학교육 #경제흐름과 부 #경제상식 #예금, 주식, 부동산 #재테크 #소비



⊕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나요?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란 무엇일까?



빠른 고령화, 소비의 미덕을 부추기는 SNS등 으로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전 연령층에 걸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경제에 대한 학습을 할 기회 없이 성장을 했고, 부족한 만큼 올바른 경제적 지식과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넘쳐나는 유튜브 영상에 의존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내 자산 지키기와 늘리기. 그저 돈을 쫓기 보다는 체계적인 경제의 흐름과 상식을 배워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과 행복의 가치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했다.

“요새 다들 주식, 비트코인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유튜브도 있고 책도 많은데 어떤 정보가 진짜야?”

“ETF는 뭐고, 채권은 또 뭐야?”

복잡한사회, 저성장시대, 긴 노년의 삶!

복잡한 현대사회 속 초 저성장 시대를 맞아 ‘경제적 자유의 실현’은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부심, 공동체의 소속감, 시민적 참여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생애주기에서 소득이 있는 시기는 제한적인 반면, 소비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늘어나는 수명과 노인 빈곤 등의 위기에서 슬기로운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시대의 흐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에 무지하고 무관심했는데, 뉴스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경제는 어렵고 막연했다. 지인들이 좋다 하면 무조건 투자했다가 종종 손해를 보곤 했다.

이제는 스스로 공부해가며 흐름을 쫓아 가볼 수 있을 것 같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총13차시에 걸친 수업 내내 이처럼 진지하고 결원 없는 참여는 본 적이 없다. 참여자들은 강의 내용이 혼자 듣기 아깝다며 지인들에게 소개를 많이 했고 대기자들이 끝까지 수업을 듣지 못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생활속 경제 상식이 필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다.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강의로 인해 ‘삶의 질’, ‘인간의 가치’ 등을 경제와 연계하여 생각해보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진정한 행복과 존엄을 인문학적으로 재 해석해 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차칸 양(필명) 양재우

용인에서 전주까지 왕복 5시간을 운전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그 어느지역보다도 참여자들의 열의 있는 태도와 진지함이 폭우 속에서도 거침없이 나를 달리게 했다. 수업이 있는 날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것 같다. 수업이 거듭되면서 질문이 하나씩 늘어나는 즐거움도 있었고, 먼 길 조심히 돌아가라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열정과 정이 넘치는 전주시민들이었다. 종강후에도 일상에서 ‘경제일기’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경제도서도 읽으면서 후속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2025 전주생활문화예술동호회 프로그램지원사업

생·동·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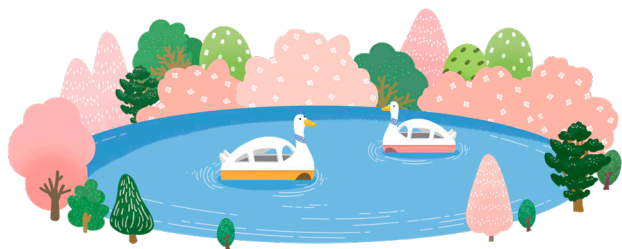
#동호회 #문화공연 #재능기부 #찾아가는 #네트워크 #체험 #역량강화

+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나요?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생활문화 동호회가 주는 감동”의 뜻처럼 인후생활문화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호회, 지역예술가, 문화예술단체 등과 지역 주민을 연계하여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불어 넣고 동호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센터는 공간을 발굴하고 동호회는 재능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내 운영 중인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공원 등을 찾아가 문화공연과 체험등을 운영함으로써 자칫 문화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지역주민도 즐겁게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아중호수

첫 공연장은 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운동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있는 아중호수로 정했다. 최근 외지인들의 명소로도 유명해지고 있다. 동호회원들과 전문예술단체 ‘사랑의 하모니’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연위주로 기획을 하였고, 시민들은 박수와 함성,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해 주셨다. 진정 호수의 아름다움 만큼이나 문화예술의 가치와 즐거움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시민들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남천교 청연루

무더위가 9월에도 한창이어서 2차는 10월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은 한옥마을에서 전주의 맛과 멋 즐거움을 함께 향유하도록 의도했다.

한옥마을 컨셉에 맞춘 DIY 땀기 키링or브로치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체험을 준비했고, 가을 분위기에 맞춘 통기타 음악 공연, 수채화부터 보태니컬까지 작품전시도 함께 했다.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은 고즈넉한 청연루에서 휴식을 취하며 공연도 즐기고, 전주의 멋스러움을 가득 담아 추억으로 남길 것이다.

안골
네거리

“이거 아직 태그도 붙어 있는데 진짜 파는 것 맞아요?”

“이건 전시만 하는거예요?”

“올해는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요?”

“저는 이런 행사는 처음 나와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또 불러주세요^^”

“완주 이서에서 오늘 아침 나온 토마토입니다. 맛보고 가세요~”



문화거리 60과 함께 이루어진 3차 생·동·감에서는 짧은 거리를 동호회 뿐만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했다. 직접 짠 수세미를 가지고 오신 분, 이서에서 토마토 농장을 하시는 분이 보내온 방울토마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간에 가을 느낌 가득 담긴 국화도 참여자들과 함께 심었다. 내년엔 더욱 확장된 생활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나기를 기대해본다.

“내년에 더 신나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만나요!”

2025 모두배움터

마음까지 춤추는 줌바

#동호회 #문화공연 #재능기부 #찾아가는 #네트워크 #체험 #역량강화

⊕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나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으로 삶을 디자인 하세요”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기관&생활문화센터&공유공간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11기관이 참여한 해당 사업은 전주 곳곳에서 평생학습을 경험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센터에서는 ‘동적인 활동과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활력을 찾고 싶은 지역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줌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하, 하, 하, 어디서 나오는 합창 합성인가!’

센터가 시끌벅적 해졌다. 처음엔 강사선생님의 합성을 따라 하기가 부끄러웠지만 ‘애라, 모르겠다. 옆사람도 하는데’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땀이 줄줄 흐른다.

와~이거 제대로 운동하고 다이어트까지 되겠는데...

심지어 옆 강의실에서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몸이 간질간질 하다고 웃는다.



두 시즌 동안 12회차씩 이루어진 줌바댄스는 약 300여명이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활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네사람들과 친근감을 형성하게된 계기로 작용했다. 프로그램 시작 전 나누는 간단한 안부, 현재 나의 감정, 그리고 몸의 상태에 대해 공유하면서 친밀감과 공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활력을 찾는 시간을 이어나가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줌바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동작(레게톤, 쿼피아 등) 연습을 통해 신체유연성을 기르고 근력도 강화하였다.



글로벌 댄스교실

1기의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참여였다. 전주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어떻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미국, 호주, 필리핀 등 유학생들을 초청하였다. 특히 신증년남성분들 참여가 눈길을 끌었고 세대, 성별, 다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평생교육의 장을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했다.



“라인댄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I’m loving it!”

“너무 재밌는데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친구를 불러서 함께 해도 될까요?”

“이렇게 운동하고 가면 그래도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들이 느꼈던 신체적·정신적 건강 챙김에 대해 알고자 인근 아파트 공용공간이나 학교운동장, 소규모 공원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참여형 줌바를 확장하고 싶었다. 야외에서 모두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일상 속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며, 특별한 준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더위와 오락가락하는 비, 참여자들의 개인 일정과 체력적 차이, 부상 등등 문제가 발목을 잡아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민들과 함께 즐긴다는 것은 새로운 만남, 자유로운 소통, 문화참여기회 확대 등 긍정적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만큼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을 센터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2025 찾아가는 틈새학습

디지털 삶 속 사진 및 동영상 편집

#링크스 #맞춤형 #사진 #영상 #창작물 #홍보 #SNS #연결고리의 확장

+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나요?

시민들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틈새학습”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생활문화센터 종사자와 강사, 동호회리더 등 소모임으로 구성된 ‘Link us(링크스)’에서는 갈수록 의존도가 높아지는 SNS 시대에 맞춰 사진 및 동영상 편집, 제작 습득을 주제로 구성하였다.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부터 기관 운영에 필요한 홍보 및 창작물, 아카이빙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맞춰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사진과 영상의 차이, 스마트폰의 효과적 촬영 기법, 사진 및 영상 편집 실습 (캡컷, 감성공장, PixVerse 등), AI 이미지 등 다양한 어플을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보고 제작된 카드뉴스나 SNS 콘텐츠를 업로드해 공유하면서 상호 피드백을 받았다.

친구들과의 추억을 담은 스티커, 귀여운 아기가 주인공인 릴스, 작품활동 모음집 등 각자 의 개성이 녹아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생산을 통해 사회적 연결고리를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 다 만들었는데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음악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어때요? 동생이 좋아하겠죠?”

“토끼가 나오는 AI 스티커는 뭘로 만드는 건가요?”



2025 찾아가는 마을 속 틈새학습

우리집 첫 겨울 리스

#여유 #자유 #치유 #향유 #핸드메이드 #데코레이션 #마음돌봄



+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나요?

마음 돌봄 4유(여유, 자유, 치유, 향유)프로그램으로 네가지 테마를 주제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인후는 ‘향유(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시간)’를 주제로 리스만들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연말에 따뜻한 마음을 가족, 지인들과 함께 나눌 때 포인트가 되는 소품으로 활용하면 돋보일 것 같아서였다.



“벌써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네요.”

“이제 배워봐서 이런 리스 만들 때 집에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다음에는 딸이랑 같이 오면 좋겠어요.”

“15명 모양 다 제각각이라 너무 신기해요!!”

비단향, 남천, 오너먼트 등 자연 재료에서 느껴지는 색감과, 향, 손에 닿는 감촉에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얻고 있었다. 항상 뒤에서 지켜만 보았던 엄마들이 리스를 만드는 순간만큼은 재잘재잘 초등아이들처럼 순수함이 묻어났다. 같은 재료에서 모두 다른 결과물이 나온 것처럼 잠시 짬을 내어 누리는 일상의 즐거움에 모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2025특성화사업

문화거리 60

#거리전시 #나눔 #기부 #마켓 #그리기 #전통문양 키팅 #가드닝 #N차점빵

⊕ 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나요?

‘문화거리60’은 시민들의 거주지 가까이에서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공연, 전시, 체험, 마켓 등 생활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아마추어예술가들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인후생활문화센터 대표 지속사업이다. 왜 60이냐고? 광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동네는 마음 놓고 전을 펼쳐놓을 공간이 없다. 60미터의 짧은 거리 일지라도 생활문화의 전을 펼쳐 시민들과 만나고, 공감하며,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이 뜻밖의 예술을 마주한 시민들은 센터를 통해 취향과 취미를 개발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동아리를 조직하고, 아마추어예술가로 성장해 가고 있다. 우리센터는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 그리고 전문 예술인들과 함께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거리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생활용품 나눔마켓 “나눔으로 지키는 환경”

생활소품 중고물품, 수공예품, 잉여식자재와 농산물 등이 판매, 교환, 기부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환경을 지키고 공유 가치 실현 모델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토마토 농장에서 잉여농산물과 주말농장 가지, 무 등 농산물은 인기가 좋았다.

문화예술거리 안골

안골네거리가 이제는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하고, 한 해 동안 노력해 온 성과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는 예술공간이 되고 있다. 올해는 센터 프로그램, 동호회 회원들이 물품기부를 많이 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나눔장터를 펼칠 수 있었다.

미술작품 전시존_길위의 갤러리

수채화, 유화, 뿔생, 펜화, 캘리그래피, 보태니컬아트 등 센터 수강생들과 동호회원들의 100여개의 작품 전시는 주민들이 가장 오래 머문 공간으로 초등학생부터 어르신 세대까지 고루 작품을 감상하는 공간이다.



체험존 “찐 재활용” & “거리예술가”

버려지는 한복, 전통무늬 옷등은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생각에 버려지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옷가지들이 동네 솜씨 장인을 만나면 예술품으로 재 탄생한다. 소소한 장신구 하나로 멋스러움 추구하는 요즘 콘셉트에 맞게 키팅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기부물품을 그리고 자신이 그린 물품을 가져가는 거리예술가 프로그램에는 어르신 세대에게 생활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가드닝 “향기가 머무는 거리”

방치되어있는 빈 화분 겹 의자에 국화를 식재하여 거리분위기를 개선하였다. 오가는 주민들이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잠시 멈춰 삶의 여유를 나누도록 하고자 문화거리 참여자 모두가 함께 꽃을 가꾸며 지역을 생각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문화거리는 센터에서 활동하는 동호회원 및 프로그램 수강생뿐만 아니라 문화거리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소개하며 정보를 교환하는등 상호교류가 확대되고있으며, 일상에서의 삶이 문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통로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버스킹, 지역상권과의 연계등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2025문화거리
+N차점빵 성과

문화거리60 마켓수익금 101,100원은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고 N차 점빵 물품 기부금 240,968원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Makers

인후



같은 취미를 갖고 취향이 비슷한 이웃을 주거지 가까이에서 만날 기회가 없으신가요? 인후생활문화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취미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소모임을 지원합니다. 또한 손재주 좋은 지역민과, 경력단절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재능을 나누고 문화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상상하는 아이디어를 바로 실현할 수 있는 메이커스 활동을 언제든지 제안해주세요.

Makers 제안하기

- 전문의, 아마추어 모두 가능합니다
- 직접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됩니다
- 내 취미와 취향을 공유할 동네 친구를 센터에서 모아드려요
- 악기연주, 댄스, 노래, 뜨개질, 목공, 학습 등 모든 분야 환영합니다
- 원데이 클래스도, 단기·장기 강의 모두 OK

Makers 참여하기

- 선정된 제안프로그램은 매월 홈페이지(기획사업)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관심 있는 취미활동이 있다면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꽃으로피어나다

입춘도 경칩도 지나고 비가 내리더니 어느새 들판에 새싹이 돋아나 봄이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걸 느낀다. 꽃 피는 봄을 기대하면서 조금 앞서 꽃을 맞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망사천을 활용하여 꿰매고, 알알이 비즈도 달았더니 에코백이 꽃으로 활짝 피어났다.



흙으로 빛는 순간

단순한 취미를 넘어 예술과 힐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력적인 활동이 도자기 공예이다. 흙을 만지고 빛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위안을 얻는다. 하얀 백자토를 밀대로 밀고 끝을 말아 올려 점시를 만들고 굳힌 후 그림을 그려 완성하고 유약을 발라 가마에 구워 점시를 완성했다. 백자토의 특성이 반짝거리고 하얀빛을 띄어서 인지 그림이 선명해 보여 더욱 예쁘게 느껴졌다. 오늘 나의 특별한 하루처럼!



나무의향기

꽃향기, 풀내음이 온 천지에 가득한 봄의 절정! 싱그러운 봄을 맞아 나무의 향기를 코끝으로 맡으며 목공 작업을 진행했다. 나무의 속성과 특징, 목공의 기본 상식을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은 후 수납트레이를 사포질하고, 오일처리하여 멋진 주방소품을 완성했다.

우산은 사랑을 싣고

갈수록 여름이 빨라지고 순식간에 집중적인 비가 내리는 일상이 거듭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다가 큰 낭패를 볼 때가 종종 있다. 안전에 대비해 시야 확보가 가능한 투명 우산에 인후 활동가들이 알록달록 예쁜 그림을 그렸다. 인근 작은도서관에 기부도 하고 우리 센터에도 비치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네임택도 함께 붙여 놓았으니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저 여기있어요~<~>



재스퍼의 오싹오싹 팬티

그림책이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하지만 때론 어른들도 그림책의 재미에 푹 빠질 때가 있다. 그림책 인형 작가님과 '재스퍼의 오싹오싹 팬티'를 함께 읽고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재스퍼를 다양한 소재(형질, 털실, 솜 등)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았다.



Q.
바느질하면서
오싹오싹할 때는?



외국인친구와 요리노리

신나는 여름방학이다. 방학을 맞은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즐거운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방학특강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중 하나였다.

친근해져야 말이 트이는 법!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계란판에 탁구공 넣기, 병뚜껑 멀리 보내기 게임을 하면서 어색함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에그 인 헬 요리시작! 야채다지기, 볶기, 토마토소스넣고 끓이기, 달걀넣기>

함께 시식을하며 자기소개하기, 취미활동은 무엇을 하는지, 어느나라에서 왔는지, 특히 좋아하는 K-POP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서로 잘 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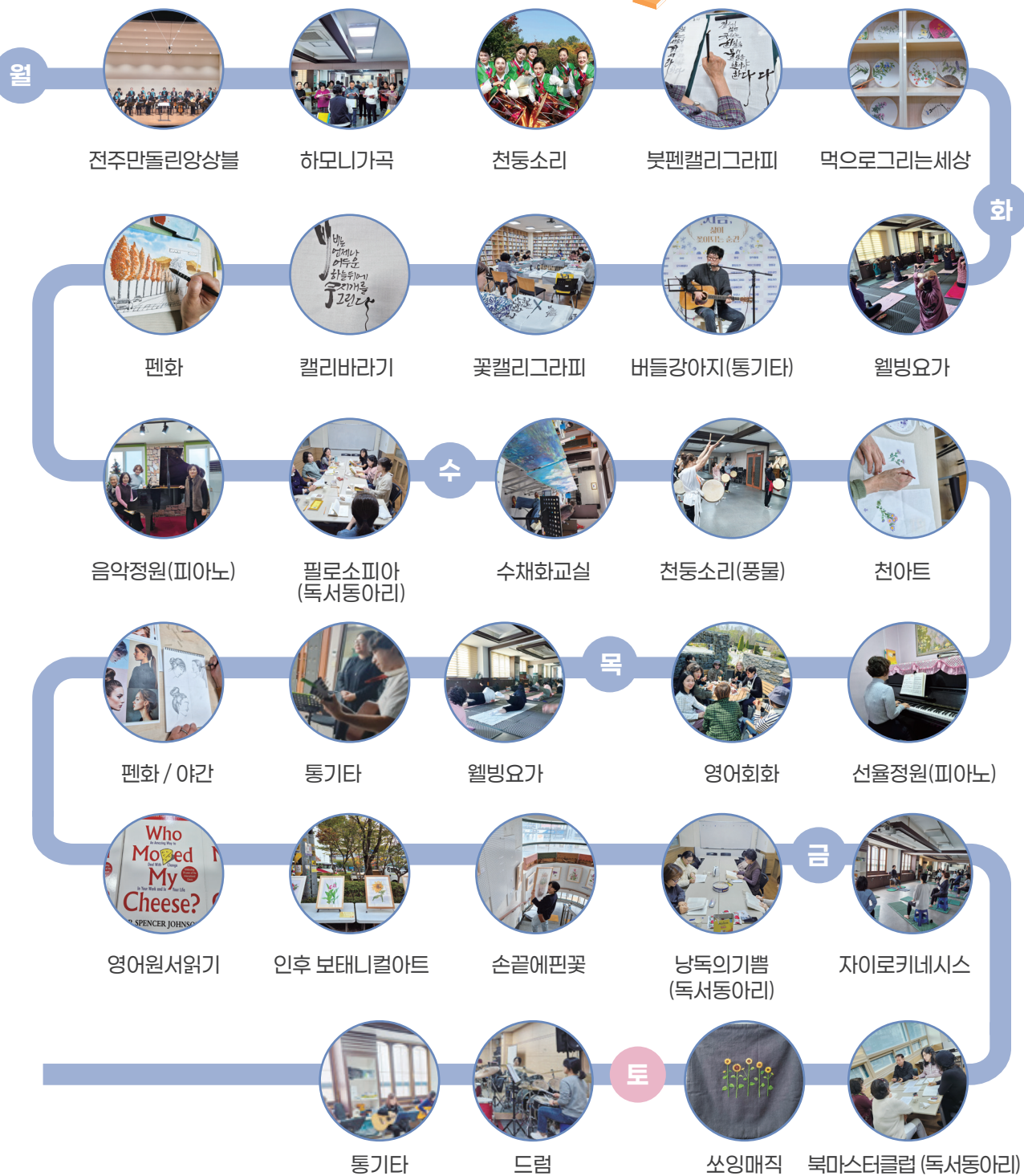


에코오브제 트레이

제스모나이트는 무독성 수성 아크릴 레진으로 영국에서 개발된 친환경 소재이다. 색을 자유롭게 섞을 수 있고, 질감이나 마블 무늬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인테리어 소품이나, 트레이 제작에 많이 쓰이고 있다. 물과 불에 강해 물세척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소한 소재를 활용하여 멋진 동물모양 소품과 조개껍질 모양 트레이를 만들어 보았다.



2025 교육, 동호회 프로그램



참여자 소감

펜화(여행드로잉)

하얀 종이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펜을 쥐고 한 줄을 긋는 것부터 시작하면, 그 뒤로 펼쳐지는 세계는 생각보다 더 놀랍고 즐거운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인후생활문화센터에서의 수업은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 그리고 다시 취미를 찾고 싶은 분 모두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형화로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풍경을 그릴 때 꼭 필요한 투시 이해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펜 드로잉 중 심이지만, 채색 수업도 함께 진행되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직접 걸으며 여행드로잉 실습을 경험합니다. 익숙하던 골목과 건물이 새롭게 보이고, 일상 속 이야기가 그림으로 기록되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저는 비전공자로 취미로 그림을 시작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그림을 배울 때 느꼈던 물입의 즐거움, 걱정이 사라지는 평화로움, 그 시간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해서, 현재는 여행드로잉 작가와 강사로 활동하며 어반 스케치스 전주 챕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신 선생님처럼 저도 센터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축적하고 응원하는 선생님이고 싶습니다.

그림은 '누가 더 잘 그리냐'가 아니라 세상을 관찰하고 감정을 담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인후에서 펜화를 그리며 나누는 소소한 일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좀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행드로잉 작가 오영석

꽃길 캘리그래피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해 쉬던 중 배우기 시작한 캘리그래피!

처음 연필을 잡고 글씨를 배우듯 붓을 잡고 선긋기, 단어쓰기, 문장쓰기를 하고 선생님의 서체를 열심히 따라 쓰다 보니 완성작도 생겨났습니다. 처음 내가 쓴 글씨에 도장을 찍던 날 함께 하는 다른 회원분들이 '잘 썼다, 많이 늘었다' 하는 칭찬을 듣고 하루 종일 행복했습니다.

좋은글과 맘에 드는 노래 가사를 보면 캘리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 둘 써놓은 것들로 작품집을 만들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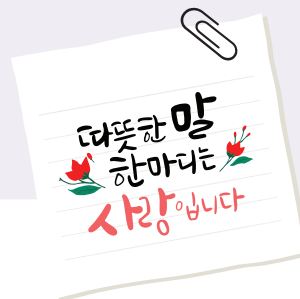
하루하루 연습하다 보면 그날도 오겠지요?

꽃길캘리그래피 회원

하모니가곡

하모니에서 가장 즐거운 점은 노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로 발성 연습을 하고 가곡을 한 곡씩 배워가며 내 목소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 모두 낯설고 수줍어서 소리도 작게 내고, 같은 음으로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파트를 나누어 부르기 시작했을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각자의 목소리가 제자리를 찾아 어우러지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모니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화음 속에서 음악의 진정한 기쁨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모니가곡 회원



생활문화 네트워크



인후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자생단체, 유관기관, 소규모 공동체들과 꾸준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과 어른이 만나고 기관과 기관이 교류하며 소규모 공동체와 동호회가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마을축제, 마을가꾸기, 문화봉사,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지역어린이집 네트워크 「꿈꾸는 창작 놀이터」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는 일본 나기 마을의 ‘나기차일드 홈’ 처럼 한 아이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중요하다. 우리가 공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들과 연계하여 어린이들을 센터로 초대, 창작 놀이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그림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책 속의 장면과 그림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과정부터 주제에 맞는 다양한 독후활동까지 폭넓게 구성하였다. 특히 유아기는 문자보다 그림에 먼저 반응하며 상상력과 정서가 크게 발달하기 때문에, 책 속 그림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이야기의 흐름을 스스로 이해하고 작은 요소를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을한다. 아이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시선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간다.

신세계어린이집 놀이터

신나는 전통놀이

#선정도서
물렛거라! 왕딱지 나가신다
#스피너
#투호, 비석치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공 공 얼음대문 열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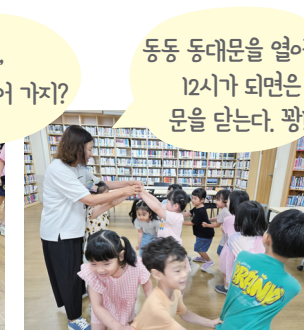
#선정도서
공공공 아이스크림
#친구똥은 손거울
#맛있는 슬러시 나눠먹어요

똥을 먹는다고?

#선정도서
아이스크림 똥
#똥의 변신, 다양한
똥모양에 따른 건강알기
#초코과자 똥

나도길다

#선정도서
나도길다
#신체일부를 보고
동물유추하기
#목소리 길게 내기,
종이 길게 찢기



지혜의숲어린이집 놀이터

나는 패션왕

#선정도서_
그건 내 조끼야
#엄마가 만들어준 조끼
#용기란 무엇일까
#나도 모델 패션쇼

오리고 붙이고 과연 얼마나
멋진 옷이 탄생할까?



내가 꾸민 옷 멋지죠?



런웨이는 마이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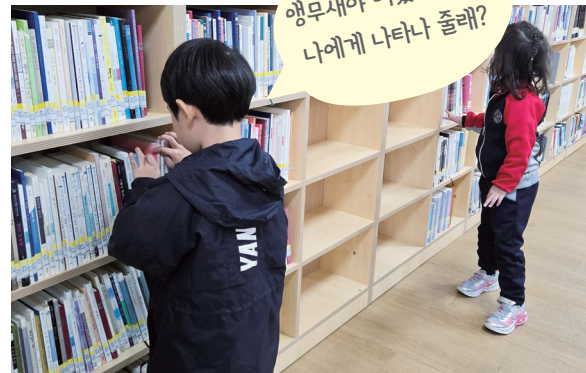
앵무새를 찾아라

#선정도서_
앵무새 열마리
#어디어디 숨었니?
도서관에 숨어있는 앵무새 찾기
#알록달록 앵무새

어디 어디 숨었나
찾아볼까요?



앵무새야 어딤니? 제발
나에게 나타나 줄래?



제 앵무새
어때요?



알곡어린이집 놀이터

김수한무

#선정도서_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옷걸이 색칠하고 꾸미기
#글자조합으로 이름찾기

와~ 책 읽어주는 아름 언니다!
오늘은 멋진 공주님이에요?



나는야 멋진 왕자님!
옷걸이도 나를 닮아
멋진 걸!



내 친구 이름이 뭐더라.
조** 찾았다!"



함께라서 좋아요

#선정도서_
바나나할머니 #모스가족액자 꾸미기
#바나나에 갇힌 친구 구출하기

선생님 저요?
우리가족 소개하고 싶어요



네거 모스액자
정말 멋지다~



바·나·나!
친구야 나 좀 물어줘



민들레 꽃이 피었습니다.

#선정도서_
민들레는 민들레
#봄에 피는 꽃알아보기, 우드행잉
#민들레 흩씨 불어날리기

태민이 흩씨 짱 멋져!



누가누가 잘
세우나 볼까?



탁구공 멀리,
빨리
야호!
우리가 이겼어.



평생학습
한마당

2025 知속전주, 함께잇知

전주의 가을이 배움의 열기로 물들었다. 세대와 기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학습 도시'를 함께 그려보는 현장이었다. 인후는 '어른도 즐기는 Fun Fun 환경놀이터'를 주제로 나눔 부스를 운영하였다. 센터 이용객들과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생활용품을 모아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환경 퀴즈이벤트를 진행했고, 올해 인후에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한 하모니 가곡팀이 시민들에게 첫 중창단 공연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인후생활문화센터는 그동안 전주시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전주를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시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주시
인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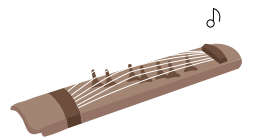
2025 공감과 치유의 인문학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채로운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인문주간!

전주시와 안골작은도서관이 연계하여 '뮤지컬로 만나는 치유인문학'을 주제로 지역 주민들과 만났다. 연극과 뮤지컬은 우리가 평소에 센터에서 만나기 어려운 문화 공연인데 공연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차근차근 배워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고마예술가 KEY, KEY



국은예아트와 함께한 꿈다락토요문화학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었다. 학력인구의 감소로 센터 또한 인근 초, 중등학생들의 발길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토요일마다 참여아이가 함께 온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까지 센터가 북적북적 활기가 넘쳤다. 주말 온 가족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센터를 더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

설화가 있는 국악체험 놀이터

전통설화 속 이야기로 상상력을 키우고 자연에서 채집한 재료로 나만의 악기를 만들어보는 신나는 국악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 국악의 맛과 멋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을 전개했다. 아이들이 스토리텔링과 창작활동을 통해 국악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전통문화와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국악 공연 영상관람, 전통악기별 소리를 내는 원리와 연주법, 풀피리 불기, 악기만들기 등 활동에 초롱초롱 호기심이 가득했다.



디지털 배움터 <스마트폰활용교육>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속에서 중,장년층 들이 식당, 은행, 대중교통, 배달서비스 등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형태가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변화하고 AI 등 인공지능 정보기술이 등장했고, 사이버범죄, 가짜뉴스 등 디지털 역기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상, 하반기 나눠 진행했다. 기본적인 스마트폰 기기 활용법부터 어플 활용법, 키오스크 활용법 등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활용법을 배우고 실습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잘 적응해 나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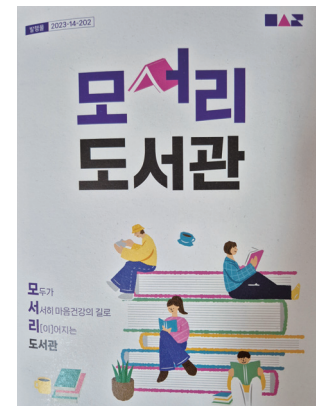
'커피 한잔 사 먹으려 해도 주문을 사람이 받는지, 기계에 해야 하는지 망설이며 밖에서 눈치를 먼저 보았다. 이제는 카페가기 전에 어플로 주문을 먼저 해 놓고 가게 되었다.'

알고 보면 이렇게 편리한 세상! 아는 만큼 누리지!



우수콘텐츠 잡지 보급사업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출과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소의 지역과 시설에 잡지를 보급함으로써 잡지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잡지협회의 사업에 올해도 선정되었다. 우수콘텐츠잡지로 선정된 20여종의 잡지를 매월 제공받아 도서관에 비치하여 지역민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월 분 잡지는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정보 접근성을 돕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모서리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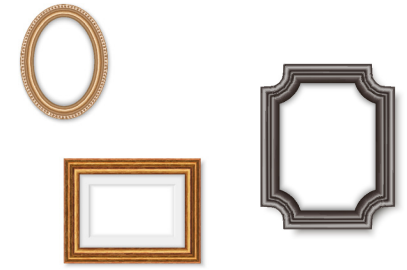
‘모두가 서서히 마음건강의 길로 이어지는 도서관’이란 의미의 모서리도서관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추천도서로 구성되어있고, 센터 출입구에 비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마음에 위로와 공감, 힐링과 휴식 등 마음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공하고 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골노인복지관, 효자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효과적인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네 분의 어르신들이 올 한 해도 센터를 위해 애써주셨다. 환경정리와 책 소독, 대출반납, 프로그램도우미 등 센터의 부족한 일손을 빈틈없이 채워주셨다.



계단 갤러리



센터프로그램 및 생활문화예술 동호인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계단갤러리를 운영중이다. 취미활동을 넘어 예술작가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은 일상속에서 쉽고 편하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서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채화교실 수강생들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릴레이 개인전을 펼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적인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관람객과 작품에 대한 대화와 공감을 나누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었다.

■ 당신의 첫 전시를 응원합니다

아직은 아마추어지만, 작품에 담긴 이야기는 충분합니다. 작은 갤러리에서 여러분의 작업을 세상에 소개해 보세요.

■ 전시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림, 사진, 공예 등 장르 제한 없이 창작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 취미로만 혼자서 이어온 작품이라고요?

작품을 완성했다면 이제 보여줄 차례입니다. 소박하지만 애정과 진심이 담긴 작품이면 충분합니다. 취미에서 전시로, 한 걸음 더 성장을 지원합니다.

■ 여러분과 취향과 취미가 같은 동네 사람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으세요.

■ 전문예술가들의 작품전시도 환영합니다.

전문작가의 작품은 시민들이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상에서의 문화 향유를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 갤러리는 누구나 참여하는 열린 미술관입니다



인후생활문화센터에서는 당신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을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전시는 ‘무료’입니다.



고요한 시선의 끝「최은」 2025. 1월

시선을 잡아두는 꽃, 물, 풍경 등을 작품으로 표현하며 치유와 행복을 나누고자 함



초심「박은정」 2025. 2월

영화, 만화속 등장인물의 특징을 살려 표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



식물, 마주하는 공감「손병선」 2025. 3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마주하며 여린 생명들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한다



마리, 천에 꽃 피우다「양말희」 2025. 4월

나에겐 사랑이 전부인 거야! 행복할 때, 누군가를 따뜻이 맞이하고 싶을 때, 모두 아름다운 꽃을 닮았어.



풍경「전민주」 2025. 5월

도시의 후미진 골목, 어릴 적 세탁소, 동네 담벼락 등 삶의 길을 따라 스멜스멜 떠오르는 추억을 그려냄



여름날의 프랑스 자수「쏘잉매직동호회」 2025. 6월 | 단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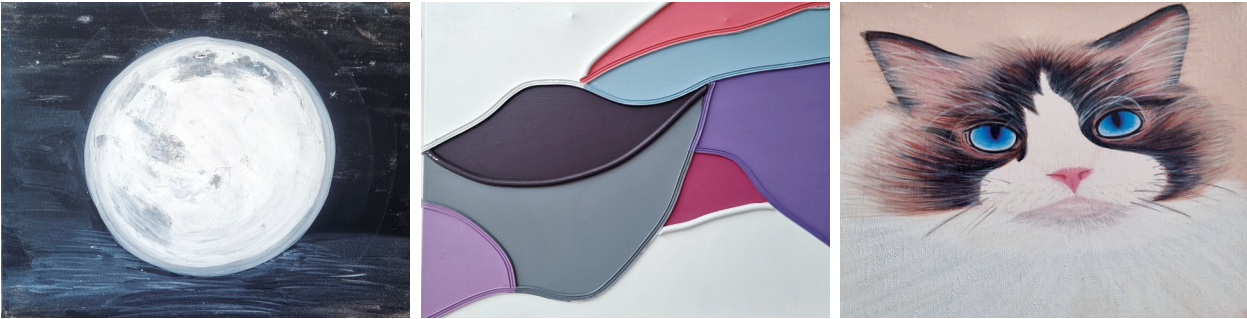
아이에겐 로봇을 딸에겐 소녀의 꽃다발을 한뼘 한뼘! 베고, 끌어안고, 짓이겨도 엄마의 사랑은 꼬떡없다





감정과 자연「김아랑」 2025. 7월

쓸모를 다한 물건들을 소재로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다



변주된 수채화「이순자」 2025. 8월

수채화교실 릴레이전시회 시작으로 작가가 일상에서 접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



흑, 백「왕경은」 2025. 9월

‘뗏목’, 연필 한 자루가 주는 가장 단순함으로 화려한 색채를 배제한 채 아름다움을 표현



내 삶의 주변이야기「조서희」 2025. 10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추억이 되는 공간,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들에 대한 행복한 기억의 소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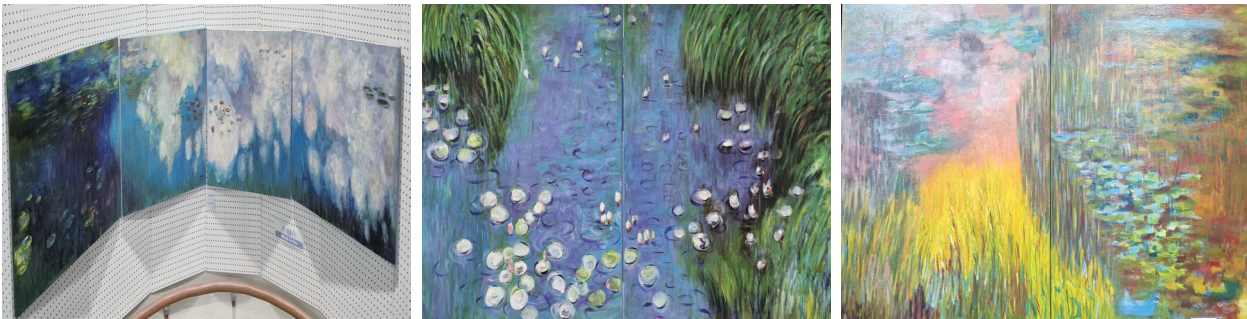
나뭇잎아트「김태영」 2025. 11월

생을 다한 낙엽, 작품을 통해 생명을 돌려 주다



모네의 정원「박경애」 2025. 12월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세계를 따라가 보는 것, 얼마나 가슴 뛰고 행복한 두근거림 인지!



책 마을

책과 사람을 잇는
작은도서관

2012년 10월 인후문화의집 작은도서관으로 첫 문을 열고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며 생활 속 문화 거점으로 자리해 왔다. 2022년에는 지역 생활문화 활동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인후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2025년 6월부터는 지역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해 안골작은도서관이라는 지역명으로 재 탄생했다.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생활친화적 공간, 주민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이어지는 소통의 공간, 일상 속에서 책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오고 있다. 안골작은도서관은 앞으로도 센터의 다양한 생활문화프로그램과 더불어 독서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인문학 교육을 보급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책마을을 지역민들과 함께 조성해 가려 한다.



알고 보면 편리한 도서관 소식

- ▶ 전주시립도서관 회원증 하나면 모든 시립·공립작은 도서관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
 - ▶ 깜빡하는 회원증 모바일 회원증으로 내려받으세요
 - ▶ 1인당 각 도서관별 10권씩 2주동안 대출이 가능합니다.
 - ▶ 상호대차 서비스 꼭 이용하세요
- <시립도서관 소장도서를 집 가까운 공립 작은 도서관에 3권까
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안골작은도서관 무인반납함 1층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

독서동아리 활동소개

독서동아리 활동은 세대, 남녀 구분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작심삼일 책읽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삼삼오오 모여 동아리를 만들고 함께 읽으면 된다. 의무감으로라도 완독을 하다보면 독서습관이 길러지고 동기부여도 된다. 또한 책을 매개로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다 보면 다양한 직업, 배경의 사람들과 사회적 연결망이 생겨난다.

북마스터클럽(BMC)

신중년들의 독서모임이다.

회원들을 보면서 사서인 나는 '연륜이 곧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며 독서를 통해 삶을 가꾸고 계신다. BMC클럽에서는 한 해 동안 어떤 책들과 함께 했을까?

<BMC가 함께한 책들>

- 숲속의 자본주의자들
-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 무지의 역사, 빛이 이끄는 곳으로
- 친애하는 술츠씨, 자화상 내마음을 그린다
- 외로움수업, 오렌지와 빵갈
- 우리는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
- 88번 버스의 기적 등

<필로소피아가 함께한 책들>

- 갈매기, 호텔뒤락
- 이 시대의 사랑, 입속의 검은 잎
- 흠결없는 파편들의 사회
- 늑대와함께 달리는 여인들
- 외로움수업, 오렌지와 빵갈
- 순수박물관, 여차피 곧 죽을텐데
- 빌러비드, 아무도아닌 등

필로와담쟁이

지혜를 사랑하는 독서모임 필로소피아는 바쁜 시간 틈틈히 꾸준한 독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자 노력한다.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슬로우리딩

혼자읽기 힘든 책들을 선정하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읽어가는 낭독 동아리다. 꼭 읽어야겠다고 마음은 먹지만 1장을 넘기기 어려운 책들이 있다. '혼자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멀리 간다'는 속담에서 배우듯 우리 동아리도 혼 독 하기 어려운 책들을 느리게 느리게 한 권씩 정복해 나가고 있다.

<슬로우리딩과 함께한 책들>

- 레미제라블 1.2.3권
- 신곡(지옥편)



사업성과공유회

음악회

2025인후생활문화센터 릴레이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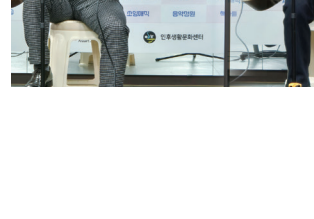
지금,
삶이
꽃이되는 순간

올 해 성과공유회는 교육·동호회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학습하고 연습해 온 드럼, 통기타, 풍물, 피아노 등 다양한 음악 분야 수강생들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진행되었다. 단순한 발표회를 넘어, 배움의 과정과 노력이 공연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공유의 장이기도 했다.

수강생들에게는 그동안의 연습 과정과 성장을 스스로 돌아보고, 공연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서로의 연주를 응원하고 교류하며 동호회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시민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활동을 직접 접하며,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경험을 제공했다. 전문가 중심의 공연이 아닌 아마추어 연주자의 발표를 통해 생활문화의 친근함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되었다.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인후생활문화센터를 매개로 자신의 취향과 취미가 비슷한 지역민들이 함께 음악을 즐기고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형 생활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손끝에핀꽃	하모니	인나는댄스	영어회화	미술가능	유화	즐거운음악
수채화	환경놀이터	N차정방	문화거리	웰빙요가	거리연기	행복
문화나눔	<div>2025 인후생활문화센터 릴레이발표회</div> <div>지금, 삶이 꽃이되는 순간</div>					동네인구
학습기회						인문학
공감과기유						수채화
뮤지컬						노래
책아름						5090
즐거운음악						원어민기
독서활동						캘리그래피
요모임						꽃길
매대공강						인근함
즐거움장바	여유	기유	기유	향유	향락활동	관계형성
영어회화	모두배움터	유화	원어민기	웰빙요가	북마스터클럽	행동강



전주만돌린앙상블 「제12회 정기연주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25 사업성과공유회

동호회 회원, 프로그램 수강생, 강사,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센터에서 이어온 다양한 활동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각자의 배움과 실천의 과정이 소개되며, 서로의 노력을 공감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교류의 장이었다. 또한 배움과 나눔, 그리고 문화로 이어진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인후생활문화센터의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고 공유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참여자들과 함께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며 다가올 2026년의 더 다채로운 활동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했다.



2025년에도 인후생활문화센터와 함께 예술의 꽃을 활짝 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후생활문화센터 & 안골작은도서관 이용안내



이용안내

전주시민 누구나 상시이용 가능
평 일 - 09:00~18:00
토요일 - 10:00~17:00 * 도서대출 15:00까지
휴 무 - 일요일, 법정, 임시공휴일, 국경일, 명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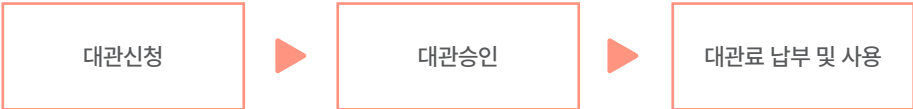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참여



공간대관
신청



대관신청시 참고하세요	•대관가능일정을 센터와 사전협의 후 대관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종교적, 상업적, 영리목적 활동은 대관불가 •이용료 : 유료		
----------------	---	--	--

구분	기준	금액(원)	사용기준
회의 행사 교육 연습	1회	20,000	•기본이용시간 : 4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이용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가산

계단갤러리
전시



문화창작실(110m²)

- 수용인원 40명
- 요가, 드럼, 댄스, 통기타, 수채화 등
- 음향시설, 빔프로젝트설치



정보사랑방(44m²)

- 수용인원 15명
- 학습, 교육, 소규모동호회활동
- 칠판, 이동식 빔프로젝트운영



작은도서관(93m²)

- 수용인원 30명
- 11,00여권의도서비치
- 시민들의 쉼터이자 공동체공간
- 빔프로젝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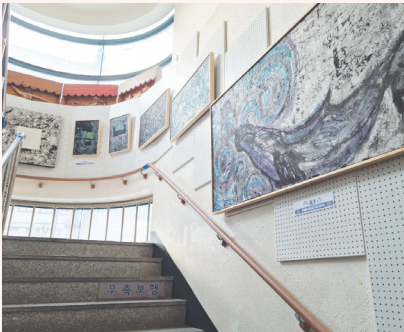
안내데스크&복도&화장실(30m²)

- 수용인원 25명
- 이용객안내 및 편의시설제공
- 사업홍보와 문화활동자료비치



열린공간(93m²)

- 수용인원 40명
- 소규모공연, 음악회, 연습공간
- 풍물, 난타, 드럼, 댄스 등



계단갤러리

- 개인전, 단체전
- 프로그램 및 동호회원 작품전시
- 지역주민 누구라도 전시가능한 예술공간



쉼터(발코니)



출입문



2층 출입문